

3. 전라남도 항목

- 3 -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3 - 2. 걱정되는 질환
- 3 - 3. 흡연 및 금연 여부
- 3 - 4. 편의시설 수요
- 3 - 5.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 3 - 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3 - 7.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
- 3 - 8. 독서여부 및 만족도
- 3 - 9. 야간활동 안전성
- 3 - 10. 디지털 전환 분야
- 3 - 11. 행정정보 획득 매체

3 -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군민 2명 중 1명은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

·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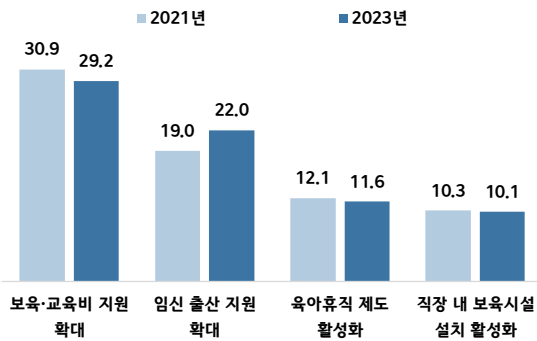
-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9.2%로 가장 높았고, ‘임신·출산 지원 확대’(22.0%),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11.6%), ‘직장 내 보육·교육 시설 설치’(1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임신·출산 지원 확대’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1년(19.0%) 대비 3.0%p 높게 나타남

· 군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1명

-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9.9%로 가장 높았고, 1명(22.1%), 3명(2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군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2021년(2.3명) 대비 0.2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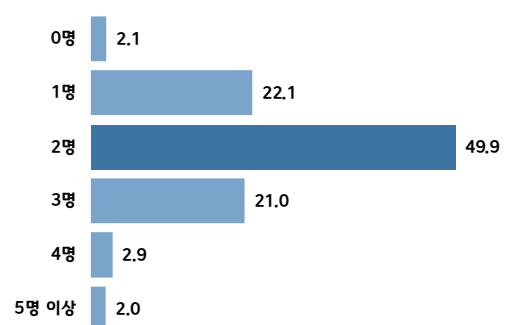
◀◀ 연도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

(단위 : %)



◀◀ 이상적인 자녀 수 ▶▶

(단위 :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1)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임신출산 지원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유연 근무제 확산	직장 내 보육 교육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타
2023년	100.0	29.2	22.0	11.6	7.4	10.1	6.5	7.7	4.7	0.8
2021년	100.0	30.9	19.0	12.1	7.9	10.3	7.1	7.0	4.7	1.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2)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 명, %)

구 분	평균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 초과
2023년	2.1	100.0	2.1	22.1	49.9	21.0	2.9	1.3	0.5	0.2
2021년	2.3	100.0	0.6	12.2	50.1	28.4	7.2	1.3	0.3	0.1

3 - 2. 걱정되는 질환

군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은 암과 치매

· 군민은 가장 걱정되는 질병은 암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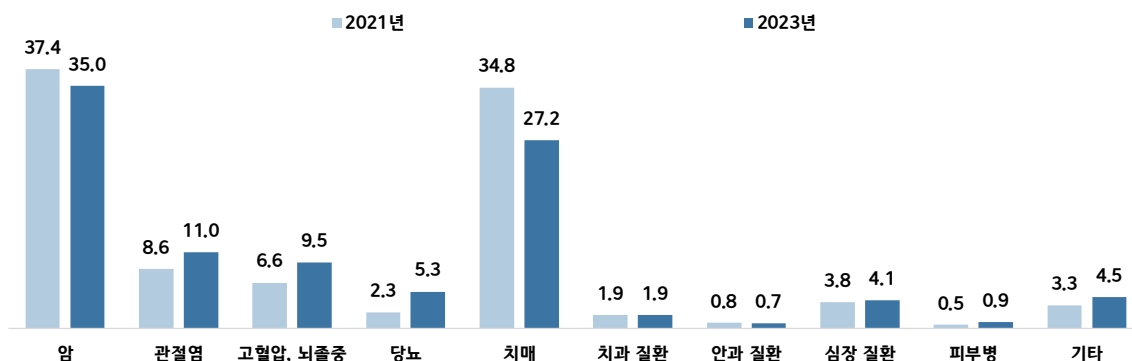
- 걱정하는 질환으로 ‘암’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5.0%로 가장 높았고, ‘치매’(27.2%), ‘관절염’(11.0%), ‘고혈압, 뇌졸중’(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걱정하는 질환이 ‘암’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29세에서 57.0%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걱정하는 질환이 ‘치매’, ‘관절염’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각각 36.0%, 19.3%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군민이 질병을 걱정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 질병을 걱정하는 이유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8.6%로 가장 높았고, ‘삶의 질 저하’(24.2%), ‘의료비 부담’(19.1%), ‘생활 불편’(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는 군민의 비율은 2021년(24.5%) 대비 5.4%p 감소함
- 남자의 경우 ‘삶의 질 저하’ 항목이 2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항목이 30.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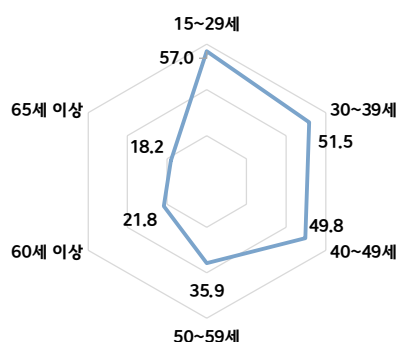
◀ 연도별 걱정되는 질환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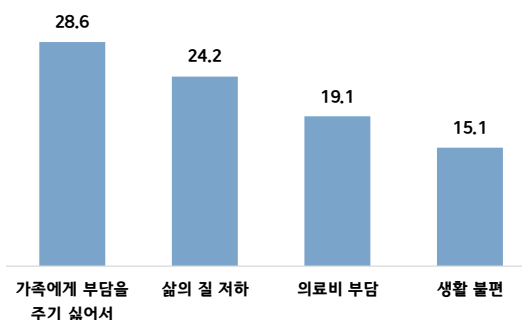
◀ 연령별 걱정하는 질환(암) ▶

(단위 : %)



◀ 걱정하는 이유 ▶

(단위 : %)



걱정되는 질환 - (1) 걱정하는 질환

(단위 : %)

구 분	계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 질환	안과 질환	심장 질환	피부병	기타
2 0 2 3 년	100.0	35.0	11.0	9.5	5.3	27.2	1.9	0.7	4.1	0.9	4.5
2 0 2 1 년	100.0	37.4	8.6	6.6	2.3	34.8	1.9	0.8	3.8	0.5	3.3
〈 성 별 〉											
남 자	100.0	36.7	6.8	12.3	6.5	23.2	1.2	0.8	5.7	1.2	5.7
여 자	100.0	33.2	15.4	6.5	4.0	31.4	2.6	0.6	2.5	0.6	3.2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57.0	3.5	6.0	1.9	10.6	5.7	0.0	1.4	5.1	8.7
3 0 ~ 3 9 세	100.0	51.5	5.8	4.1	3.6	16.6	1.6	0.0	10.5	0.7	5.5
4 0 ~ 4 9 세	100.0	49.8	4.4	10.7	3.8	21.8	1.5	0.0	2.4	0.0	5.7
5 0 ~ 5 9 세	100.0	35.9	7.0	11.0	5.8	29.5	1.2	0.9	4.1	0.3	4.4
6 0 세 이 상	100.0	21.8	17.2	10.5	6.7	34.1	1.2	1.1	4.3	0.3	2.8
6 5 세 이 상	100.0	18.2	19.3	10.0	6.7	36.0	1.1	1.3	4.2	0.4	2.8

걱정되는 질환 - (2) 걱정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의료비 부담	생활 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기타
2 0 2 3 년	100.0	19.1	15.1	24.2	9.7	28.6	3.3
2 0 2 1 년	100.0	24.5	13.7	24.6	8.9	26.6	1.7
〈 성 별 〉							
남 자	100.0	19.7	14.5	27.1	7.5	26.7	4.5
여 자	100.0	18.5	15.7	21.2	12.0	30.6	2.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25.9	10.4	24.1	3.9	28.1	7.7
3 0 ~ 3 9 세	100.0	16.6	16.6	28.8	9.5	23.7	4.7
4 0 ~ 4 9 세	100.0	21.5	10.4	24.9	5.7	32.0	5.6
5 0 ~ 5 9 세	100.0	20.9	14.5	29.9	7.8	23.9	3.0
6 0 세 이 상	100.0	16.3	17.6	21.0	13.1	30.5	1.4
6 5 세 이 상	100.0	16.5	17.3	19.2	13.9	32.2	1.0

3 - 3. 흡연 및 금연 여부

군민이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

• 군민 6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

-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군민은 15.7%,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84.3%로 나타남
-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21년(14.2%) 대비 1.5%p 증가함
-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군민 중 과거에도 피워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군민은 79.5%로 나타남

• 흡연자 5명 중 3명은 금연을 시도한 적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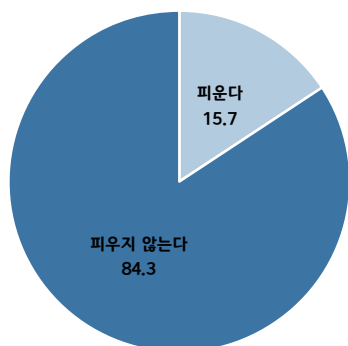
- 담배를 피우는 군민 중 금연을 시도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55.9%로 2021년(48.6%) 대비 7.3%p 증가함
- 30~39세 연령대의 경우 흡연자 중 80.3%가 금연을 시도한 적 있다고 응답함

• 군민이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

-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로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응답한 군민은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42.2%), '금단증세가 심해서'(1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군민은 13.4%로 남자(1.1%)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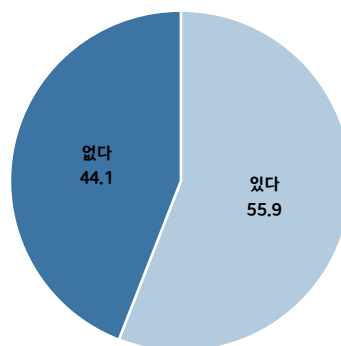
<< 흡연 여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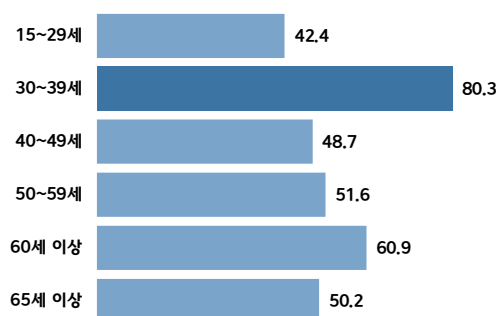
<< 흡연자 중 금연시도 여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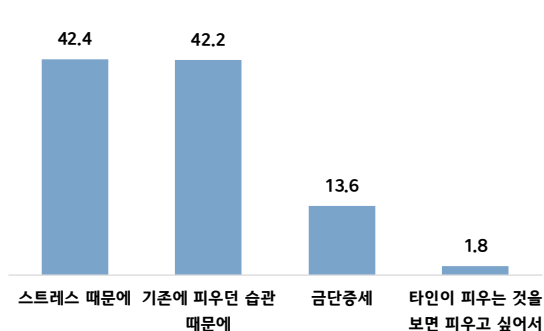
<< 연령별 금연시도 여부(있다) >>

(단위 : %)



<<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 >>

(단위 : %)



흡연 및 금연 여부 - (1)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단위 : %)

구 분	계	피운다									피우지 않는다
			소계	1~5 개비	6~10 개비	11~15 개비	16~20 개비	21~25 개비	26~30 개비	30 개비 초과	
2 0 2 3 년	100.0	15.7	100.0	12.2	33.9	12.0	37.3	0.0	2.5	2.1	84.3
2 0 2 1 년	100.0	14.2	100.0	8.2	39.7	7.6	36.6	1.2	3.2	3.5	85.8

흡연 및 금연 여부 - (2) 비흡연자의 과거 흡연 여부

(단위 : %)

구 분	계	피운다	피우지 않는다			
				소계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피워본 적이 없다
2 0 2 3 년	100.0	15.7	84.3	100.0	20.5	79.5
2 0 2 1 년	100.0	14.2	85.8	100.0	22.0	78.0

흡연 및 금연 여부 - (3) 금연 시도 여부

(단위 : %)

구 분	계	있다	없다
2 0 2 3 년	100.0	55.9	44.1
2 0 2 1 년	100.0	48.6	51.4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2.4	57.6
3 0 ~ 3 9 세	100.0	80.3	19.7
4 0 ~ 4 9 세	100.0	48.7	51.3
5 0 ~ 5 9 세	100.0	51.6	48.4
6 0 세 이 상	100.0	60.9	39.1
6 5 세 이 상	100.0	50.2	49.8

흡연 및 금연 여부 - (4) 금연을 못하는 이유

(단위 : %)

구 분	계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기타
2 0 2 3 년	100.0	42.4	1.8	13.6	42.2	0.0
2 0 2 1 년	100.0	49.8	5.3	12.6	30.8	1.5
< 성 별 >						
남 자	100.0	43.4	1.1	13.3	42.2	0.0
여 자	100.0	25.5	13.4	19.2	41.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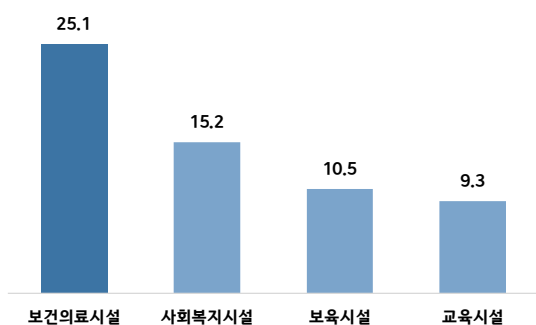
3 - 4. 편의시설 수요

군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

- **군민 4명 중 1명은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이 보건의료시설이라고 응답**
 -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 ‘보건의료시설’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5.1%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15.2%)’, ‘보육시설’(10.5%), ‘교육시설’(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1년 대비 응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도로 및 주차시설’(8.6%)로, 2021년(5.7%) 대비 응답률이 2.9%p 증가함
- **편의시설 수요는 지역별 차이를 보임**
 - 모든 지역권에서 ‘보건의료시설’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북부권의 경우 ‘보육시설’ 20.0%, ‘사회복지시설’ 18.9%로 타 지역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서부권, 광주인근권의 경우 ‘대중교통시설’ 항목에 각각 13.9%, 12.2%로 타 지역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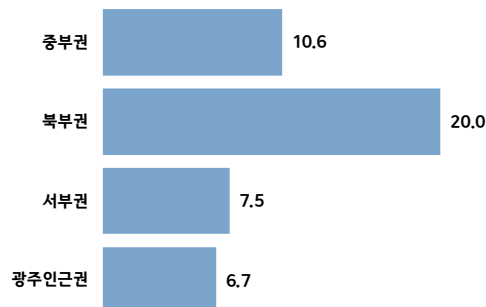
◀ 편의시설 수요 ▶

(단위 : %)



◀ 지역별 ‘보육시설’ 응답률 ▶

(단위 : %)



편의시설 수요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보육 시설	교육 시설	보건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대중 교통 시설	도로 및 주차 시설	문화 예술 시설	생활 체육 시설	판매 상업 시설	상하 수도 시설	기타
2023년	100.0	10.5	9.3	25.1	15.2	8.4	8.6	8.2	8.7	3.6	0.8	1.6
2021년	100.0	11.9	8.3	24.9	17.0	7.7	5.7	8.2	9.2	4.9	1.3	0.9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0.6	11.8	23.0	15.3	5.4	12.7	6.7	9.2	3.3	0.6	1.4
북 부 권	100.0	20.0	5.8	26.4	18.9	3.0	1.5	5.1	10.8	2.2	1.7	4.6
서 부 권	100.0	7.5	9.4	29.2	11.6	13.9	8.0	9.3	6.1	3.9	0.2	0.8
광주인근권	100.0	6.7	6.2	23.9	16.8	12.2	5.7	12.6	9.2	5.0	1.2	0.6

3 - 5.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군민 5명 중 2명은 기후변화를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

· 기후변화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군민의 비율 2021년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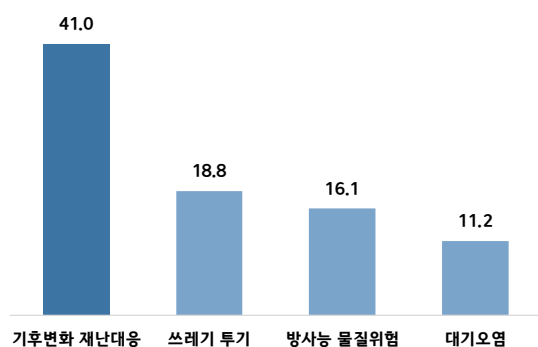
-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환경 문제로 '기후변화 재난 대응'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1.0%로 2021년(37.0%) 대비 4.0%p 증가함
- 2021년 대비 응답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대기오염'(11.2%)로 2021년(25.8%) 대비 응답률이 14.6%p 감소함
- 2021년 대비 응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방사능 물질 위험'(16.1%)으로 2021년(2.6%) 대비 응답률이 13.5%p 증가함

· 북부권은 타 지역 대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

- '기후변화 재난 대응' 항목의 응답률은 북부권에서 54.1%로 가장 높았고, 광주인근권(42.5%), 중부권(38.0%), 서부권(3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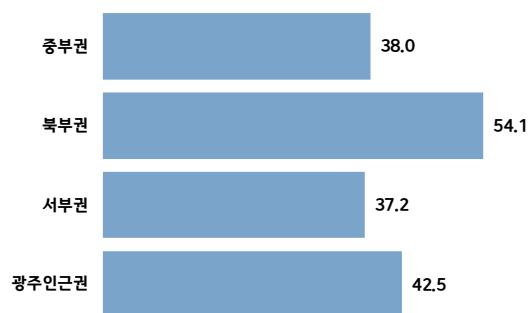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

(단위 : %)



<< 지역별 '기후변화 재난대응' 응답률 >>

(단위 :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계	기후변화 재난대응	유해 화학물질 사용	방사능 물질위험	대기오염	농약, 화학비료 사용	수돗물 오염	쓰레기 투기	기타
2023년	100.0	41.0	3.1	16.1	11.2	5.7	1.9	18.8	2.3
2021년	100.0	37.0	3.4	2.6	25.8	9.2	2.3	19.2	0.6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8.0	3.2	14.2	10.9	3.4	2.9	22.9	4.6
북 부 권	100.0	54.1	1.5	19.6	7.1	6.4	1.8	8.6	0.9
서 부 권	100.0	37.2	4.2	15.3	17.7	8.8	0.5	16.2	0.2
광 주 인 근 권	100.0	42.5	2.7	19.0	6.1	6.6	1.3	20.9	1.0

3 - 6.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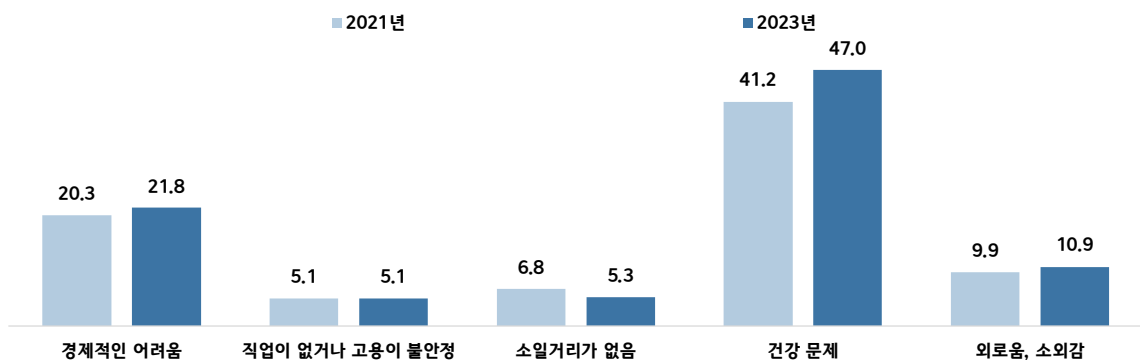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문제

·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건강 문제라고 응답

- 겪고 있는 어려움이 '건강 문제'라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군민의 비율은 47.0%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인 어려움'(21.8%), '외로움, 소외감'(10.9%), '소일거리가 없음'(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건강 문제' 항목의 응답률은 2021년(41.2%) 대비 5.8%p 증가함
- '일상 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항목의 응답률은 2.9%로 2021년(6.4%) 대비 3.5%p 감소함

<< 연도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단위 : %)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다중 응답)(계속)

(단위 : %)

구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2023년	100.0	21.8	5.1	5.3	47.0	10.9
2021년	100.0	20.3	5.1	6.8	41.2	9.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다중 응답)

(단위 : %)

구분	가족으로부터 냉대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시설 부족	기타
2023년	0.6	2.6	2.9	2.5	1.2
2021년	0.5	5.4	6.4	3.0	1.5

3 - 7.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다문화 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군민 5명 중 2명은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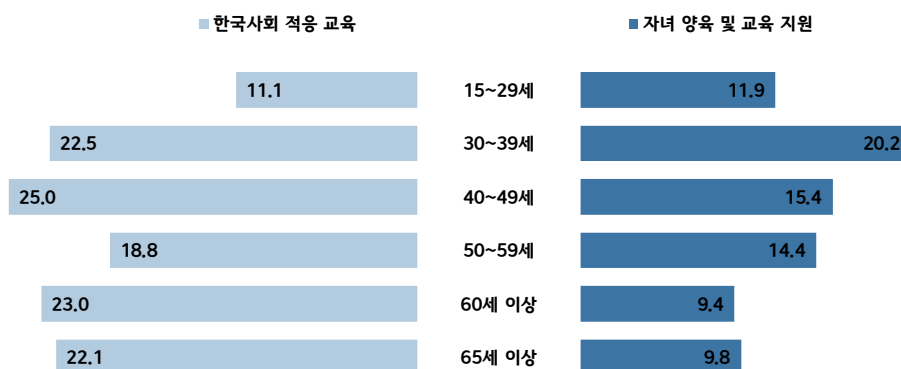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3.3%로 가장 높았고, ‘한국사회 적응 교육’(20.8%),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1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각 항목의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2021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연령별 차이를 보임**

- 15~29세의 경우 ‘한국사회 적응 교육’ 항목의 응답률은 11.1%로 타 연령대 대비 낮게 나타남
- 30~39세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항목의 응답률은 20.2%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한국사회 적응 교육’,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응답률 >>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단위 : %)

구 분	계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한국사회 적응교육	경제적 지원	소통 공간 제공 및 상담	기타
2023년	100.0	43.3	11.4	12.3	20.8	7.0	4.9	0.3
2021년	100.0	43.1	8.3	12.3	19.9	9.0	6.7	0.7
< 연 령 별 >								
15~29세	100.0	55.3	11.0	11.9	11.1	7.3	3.4	0.0
30~39세	100.0	32.8	14.4	20.2	22.5	5.2	5.0	0.0
40~49세	100.0	39.5	8.3	15.4	25.0	4.2	7.5	0.0
50~59세	100.0	40.2	15.5	14.4	18.8	6.4	4.7	0.0
60세 이상	100.0	44.0	10.1	9.4	23.0	8.2	4.6	0.6
65세 이상	100.0	45.4	9.3	9.8	22.1	8.8	4.1	0.6

3 - 8. 독서여부 및 만족도

군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2.8권

• 군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2021년 대비 증가

- 군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2.8권으로 2021년(2.1권) 대비 0.7권 증가함
- 한 해 동안 읽은 책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2.4%로 2021년(57.9%) 대비 5.5%p 감소함
- 한 해 동안 읽은 책이 '11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9%로 2021년(3.3%) 대비 1.6%p 증가함

• 독서량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5~29세의 연평균 독서량은 5.4권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 연평균 독서량은 30~39세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남

• 군민의 과반은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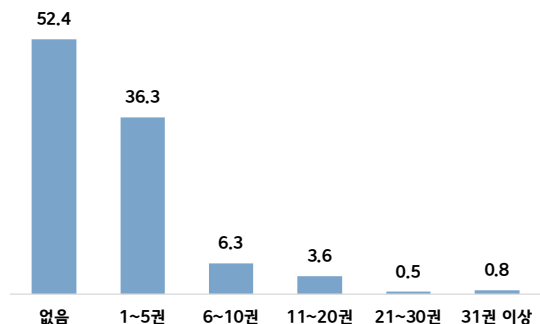
- 독서량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6.0%로 나타남

• 군민이 독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응답

- 독서량이 부족한 군민 중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로 '책을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1.3%로 가장 높았고,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23.2%),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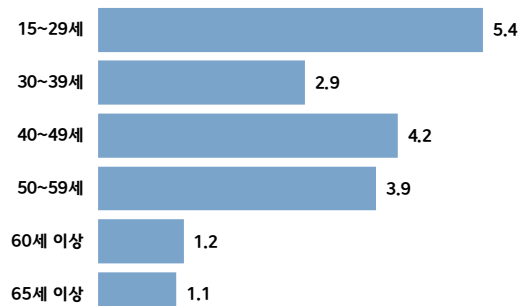
<< 연 평균 독서량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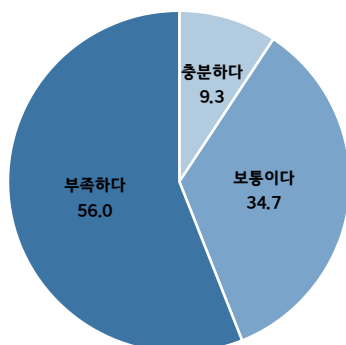
<< 연령별 독서량 평균 >>

(단위 :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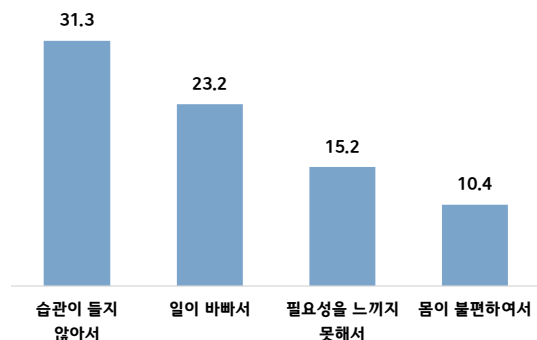
<< 독서량 만족여부 >>

(단위 : %)



<< 독서량 부족 이유 >>

(단위 : %)



독서여부 및 만족도 - (1) 독서량

(단위 : 권, %)

구 분	평균	계	없음	1~5권	6~10권	11~20권	21~30권	31권 이상
2023년	2.8	100.0	52.4	36.3	6.3	3.6	0.5	0.8
2021년	2.1	100.0	57.9	33.7	5.1	2.1	0.9	0.3
<연령별>								
15~29세	5.4	100.0	26.7	50.4	12.2	7.6	1.9	1.2
30~39세	2.9	100.0	37.7	47.9	9.6	4.2	0.0	0.7
40~49세	4.2	100.0	35.7	47.9	9.7	4.5	0.7	1.5
50~59세	3.9	100.0	35.8	48.9	8.3	5.1	0.5	1.4
60세 이상	1.2	100.0	73.1	22.3	2.5	1.6	0.2	0.3
65세 이상	1.1	100.0	77.5	18.2	2.2	1.5	0.2	0.4

독서여부 및 만족도 - (2) 독서량 만족여부

(단위 : %)

구 분	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2023년	100.0	9.3	3.3	6.0	34.7	56.0	31.9	24.0
2021년	100.0	5.9	1.4	4.5	31.0	63.2	29.8	33.3

독서여부 및 만족도 - (3) 독서량 부족이유 (다중 응답)(계속)

(단위 : %)

구 분	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 읽기가 어려워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2023년	100.0	31.3	23.2	5.8	10.4	1.8
2021년	100.0	37.4	28.2	5.2	10.6	1.8

독서여부 및 만족도 - (3) 독서량 부족이유

(단위 : %)

구 분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책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2023년	1.4	0.7	1.2	5.2	15.2	3.7
2021년	1.1	0.2	0.4	3.8	9.0	2.3

3 - 9. 야간활동 안전성

야간 활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군민은 5명 중 2명

• 군민 10명 중 4명은 야간활동이 안전하다고 응답

-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9%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40.7%), ‘불안하다’(1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중부권에서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군민은 불안한 주된 원인으로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물어서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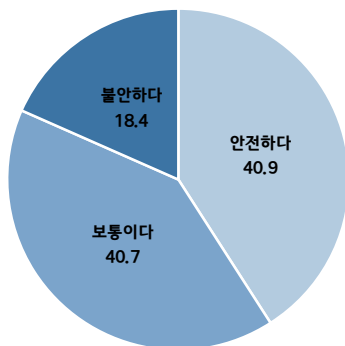
- 야간활동이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군민 중 불안한 원인으로 ‘가로등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군민은 53.1%, ‘인적이 드물어서’라고 응답한 군민은 41.4%로 나타남

• 군민은 야간활동이 불안하더라도 대체로 그냥 다닌다고 응답

- 야간활동이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군민 중 대처방법으로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6.0%로 가장 높았고,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28.3%),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8.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2021년(61.4%) 대비 15.4%p 감소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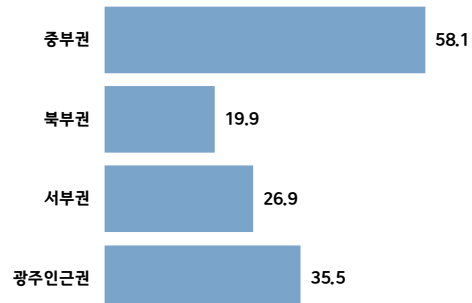
<< 야간활동 안전성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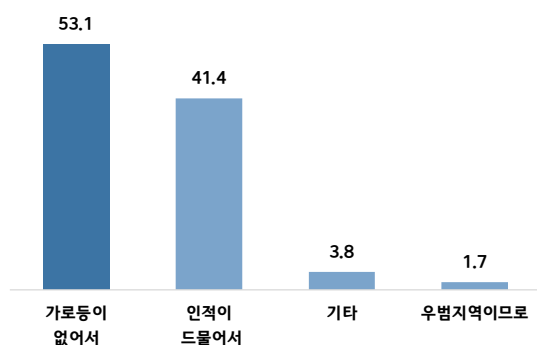
<< 지역별 야간활동 안전성(안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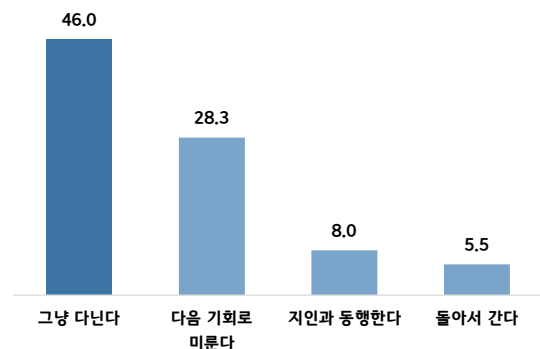
<<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

(단위 : %)



<< 야간활동 불안 대처방법 >>

(단위 : %)



야간활동 안전성 - (1) 안전성

(단위 : %)

구 분	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비교적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2 0 2 3 년	100.0	40.9	14.1	26.8	40.7	18.4	13.7	4.7
2 0 2 1 년	100.0	49.6	11.8	37.8	36.7	13.7	11.7	2.0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58.1	22.1	36.0	28.2	13.6	9.1	4.5
북 부 권	100.0	19.9	3.0	16.9	71.3	8.8	6.2	2.6
서 부 권	100.0	26.9	8.3	18.6	44.9	28.2	22.1	6.1
광 주 인 근 권	100.0	35.5	11.9	23.7	39.4	25.1	19.9	5.1

야간활동 안전성 - (2) 불안한 원인

(단위 : %)

구 분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2 0 2 3 년	100.0	53.1	1.7	41.4	3.8
2 0 2 1 년	100.0	60.9	0.8	34.8	3.6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42.7	2.2	50.1	5.0
북 부 권	100.0	52.9	0.0	40.4	6.7
서 부 권	100.0	74.8	1.9	18.7	4.6
광 주 인 근 권	100.0	32.6	1.3	66.1	0.0

야간활동 안전성 - (3) 대처방법

(단위 : %)

구 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덜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 0 2 3 년	100.0	46.0	5.5	4.3	8.0	28.3	1.9	6.1
2 0 2 1 년	100.0	61.4	0.9	5.6	4.8	25.3	0.0	2.0
〈 연 령 별 〉								
1 5 ~ 2 9 세	100.0	43.5	9.7	5.5	7.5	16.2	3.4	14.2
3 0 ~ 3 9 세	100.0	44.9	8.8	0.0	4.6	23.0	0.0	18.7
4 0 ~ 4 9 세	100.0	46.3	3.1	3.4	10.1	30.7	0.0	6.5
5 0 ~ 5 9 세	100.0	36.8	5.7	6.0	12.0	29.9	5.1	4.4
6 0 세 이 상	100.0	51.8	3.9	3.9	6.0	32.7	0.7	1.0
6 5 세 이 상	100.0	52.7	2.3	4.2	4.3	35.1	0.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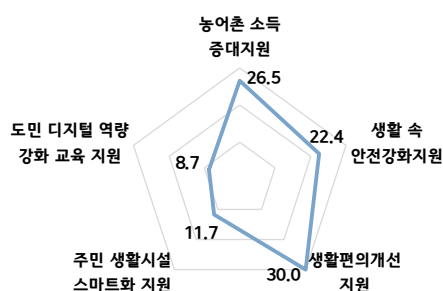
3 - 10. 디지털 전환 분야

군민이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분야는 생활편의 개선

- 군민 10명 중 3명은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분야는 생활편의라고 응답
 -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로 ‘생활편의 개선 지원’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0.0%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26.5%),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22.4%), ‘주민 생활시설 스마트화 지원’(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군민은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라고 응답
 - 거주 지역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보건·의료 분야’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3.8%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분야’(21.8%), ‘농림어업 분야’(16.1%), ‘교통·안전 분야’(1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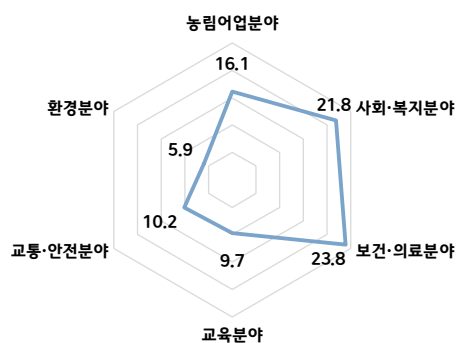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

(단위 : %)



◀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 ▶

(단위 : %)



디지털 전환 분야 - (1) 지원 분야

(단위 : %)

구 분	계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	생활편의 개선 지원	주민 생활시설 스마트화 지원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기타
2 0 2 3 년	100.0	26.5	22.4	30.0	11.7	8.7	0.6

디지털 전환 분야 - (2)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 (다중 응답)

(단위 : %)

구 분	계	농림어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	공공·행정 분야	교통·안전 분야	금융·경제 분야	관광 분야	환경 분야	노동 분야	기타
2 0 2 3 년	100.0	16.1	21.8	23.8	9.7	5.2	10.2	2.3	3.6	5.9	1.3	0.1

3 - 11. 행정정보 획득 매체

군민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시·군정 정보 습득

· 군민이 도정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수단은 TV

- 도정정보 습득수단으로 'TV'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4.7%로 가장 높았고, '주변 사람들'(13.6%), '인터넷'(13.4%), 'SNS'(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군민이 군정 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수단은 주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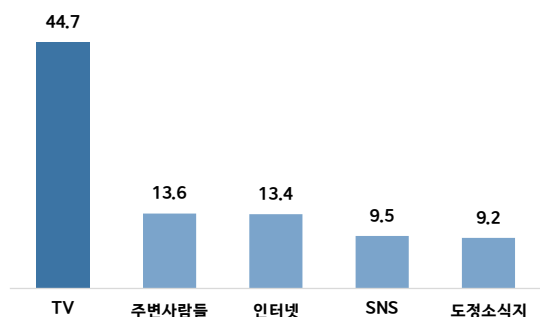
- 군정 정보 습득수단으로 '주변 사람들'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9.9%로 가장 높았고, 'TV'(18.3%), '인터넷'(15.2%), 'SNS'(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행정정보 습득수단은 2021년과 차이를 보임

- '소식지' 항목의 응답률은 도정, 시·군정 정보 각각 9.2%, 7.0%로 2021년(17.4%, 19.4%) 대비 8.2%p, 12.4%p 감소함
- 'TV' 항목의 응답률은 2021년(25.7%, 3.4%) 대비 각각 19.0%p, 14.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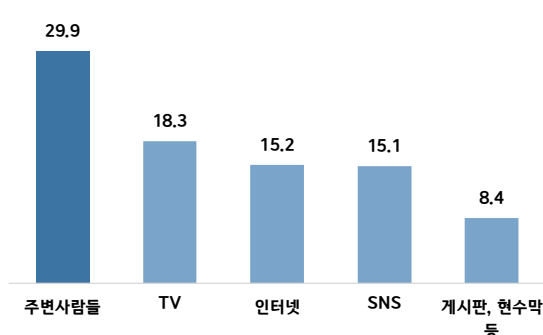
◀◀ 도정정보 습득 수단 ▶▶

(단위 : %)



◀◀ 시·군정 정보 습득 수단 ▶▶

(단위 : %)



행정정보 획득 매체 - (1) 도정정보 습득 수단

(단위 : %)

구 분	계	전남 도정 소식지	TV	라디오	신문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SNS	반상 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2023년	100.0	9.2	44.7	1.6	3.5	3.6	13.4	9.5	0.3	13.6	0.5
2021년	100.0	17.4	25.7	0.8	4.1	2.0	11.6	10.3	0.5	26.5	1.0

행정정보 획득 매체 - (2) 시·군정 정보 습득 수단

(단위 : %)

구 분	계	시·군정 소식지	TV	라디오	신문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SNS	반상 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2023년	100.0	7.0	18.3	1.4	2.8	8.4	15.2	15.1	1.2	29.9	0.7
2021년	100.0	19.4	3.4	0.2	3.8	5.8	16.0	9.8	1.2	38.8	1.4